

축령산편백숲 어울림치유여행 사업 박차

장성군, 추진위 발족...편백 시설물 활용 관광·휴양지 조성 국비 70억원 투입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주민소득 증대

장성군이 농식품부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된 '축령산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사업 설명회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추진위는 사업기간 동안 자문·의결 기능과 사업추진단 시행사업에 대한 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림을 품은 축령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사업'은 편백숲을 매개로 관광·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4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70억원 규모의 국비 등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마을 주민이 함께 축령산 일원을 치유여행지로 집중 육성하게 된다.

장성군은 기존 편백 시설물을 활용해 치유·체험·관광·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산림청이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한 축령산 편백숲은 1150ha 규모로 울창하게 조성된 50~60년생 상록수 군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1956년 춘원 임중국 선생이 홀로 나무를 심어 만들기 시작한 인공 조림지다.

특히 소나무보다 53% 가량 더 많은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 군락은 도시민들에게 '산림욕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유덕석 장성군수는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축령산이 관광과 지역경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축령산 편백숲이 지역민들의 산림욕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충곤(가운데)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하고 산림산업과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

구충곤 군수 "휴양·치유 등 미래성장산업 산림자원 관리 철저"

구충곤 화순군수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을 받았다.

화순군에 따르면 구 군수는 (사)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하고 산림청 후원으로 18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 향상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해 산림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향상,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입법·자치·연구·교육·정책·행정·단체·임업 등 8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구 군수는 화순군 전체면적의 73.2%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발전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자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 군수는 미래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관광 등 다양한 산림복지 제공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였다.

특히 산림자원의 가치와 기능이 중요해지고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명품 숲 조성은 물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힐링 화순' 브랜드 창출에도 주력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산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휴양·치유, 관광, 바이오 에너지 생산 등 미래 산림 생태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전국 제1의 산림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성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가구 안전망 역할 '톡톡'

장성군이 추진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갑작스런 위기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기초수급 탈락·중저가 구, 전기·수도 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2월 현재까지 총 216가구에 1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생계비 127가구

(212명) 8100만원, 긴급의료비 58가구 (58명) 1억100만원, 기타 31가구(59명)에 39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삶을 도왔다.

장성군이 연중 추진 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소득자의 사망과 질병, 사고 또는 구상원의 방임, 학대, 폭력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비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한파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가구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월동란 제거 방제작업 '갈색날개매미충' 피해 예방

담양군은 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으로 인한 산림·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동란 제거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갈색날개매미충 원산지는 중국 산둥성, 저장성 일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지난 2010년 국내 충남 공주, 예산 일원의 산지 및 과수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 전국으로 확산된 상태이다.

지난 2010년부터 군에 일부 발생한 이듬해해충은 최근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급격히 확산된 상태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성충과 약충은 잎과 어린가지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그늘음병을 유발시켜 수목의 생육환경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고사시키기도 한다.

또 포도나 사과, 배 등의 과수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액을 빨아먹어 농작물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등 작황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군은 현재 생활권 주택 및 산림인접지 48ha, 21농가에 대해 방제작업을 완료했으며 내년 2월까지 월동란 제거기간으로 설정해 갈색날개매미충 피해예방을 위한 방제작업에 나선다.

담양군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본부 운영과 적극적인 방제를 통해 농경지 피해 최소화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화순군, '건강 과일바구니 지원 사업' 호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센터 16곳 400명 대상 추진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진한 '건강 과일바구니'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16곳의 아동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가공식품에 길든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고 신선한 채소·과일 등 컬러 푸드와 건강한 간식 선택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품 선택에 따른 섭취를 실천하도록 사과와 귤, 참다래 등 다양한 과일을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송미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건강 과일바구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간식을 섭취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고맙습니다! 목 좀 축이고 안전운행 바랍니다"

담양 종교시설·아파트 경비실에 택배기사 마실 음료 비치 감동

"고맙습니다~~ 안에 음료가 있으니 목을 좀 축이시고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담양군의 종교시설과 아파트 등지에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이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음료를 비치해 놓고 있어 전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사진>

담양읍에 있는 천주성요한수도회 담양대건센터는 지난해부터 센터 입구에 냉장·냉동고와 온장고를 설치해 다양한 음료를 채워 넣고 있다.

담양대건센터에 들르는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들이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택배기사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담양대건센터 관계자는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그마한 정성"이라며 "따뜻한 곳에서 받아온 음료를 냉장고, 온장고에 넣어 두기도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택배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우정청 관계자는 "담양읍 모 아

우체부님 / 택배기사님

고맙습니다~~~ 안에 음료가 있으니 목을 좀 축이시고... 안전운행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느~을 행복하시게요. ♥♥♥

파트 경비실에도 음료가 비치돼 집배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사회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